만성병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회사원 정여진(51세) 씨는 집 근처 의원이 아닌 집에서 한 참 떨어진 종합병원을 매 달 한 번씩 방문한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가지만 오후 2시는 돼야 진료가 끝난다. 이렇다 보니 하루 중 절반은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정 씨가 들르는 곳은 내과 외에도 신장내과, 안과 등 여러 과를 방문한다.

내과에서 진료와 함께 약을 처방받고 그 밖에 과에서 각종 합병증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쁜 업무에 쫓기다보면 따로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루 월차를 내야 가능해진다. 힘들게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도 늘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약을 하고 가도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 3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하고, 기다려서 의사와 대면해도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고작 3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주부 윤지연(64세) 씨는 얼마 전 이사를 오면서 집과 멀지 않은 작은 의원으로 옮겼다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 다시 가기로 했다. 이유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성의 없는 의사의 태도에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다.

윤 씨가 전에 다니던 병원은 큰 대학병원이었지만 이사 온 곳과 위치상 거리가 너무 멀어 집 앞 가까운 의원을 생각 끝에 옮겼지만 결국 큰 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감기환자나 당뇨 ·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등 2 ·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약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동네의원 · 대학병원 할 것 없이 약값의 30%만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내야 하는 약값은 대형 대학병원 60%, 종합병원 50%, 중소병원 40%로 오르고, 동네의원만 현 30%를 유지한다. 당뇨

〈당뇨병환자 대형병원 이용 시 약값 부담 변화〉

▶전체약제비: 16만 5610원
현재(평균) 4만9680원→ 9만9370원

병환자가 대형병원으로 가면 많게는 60%까지 부담해야 하며 이는 현재 약값보다 두 배 가까이나 더 내야하는 셈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가벼운 질환이나 만성병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고 동네의원이나 병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기 위함이다. 실제 대형병원은 환자로 넘쳐나고 있다. 진료예약을 하더라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은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당뇨병환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달갑지 않다. 당뇨병의 특성상 각종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상이 생기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검사도 받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긴대기시간과 짧은 진료시간을 감수하더라도 큰 병원으로 가야 안심이 된다. 유명 병원이나 큰 병원을 무조건 선호하는 환자의 심리도 물론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차의료기간은 당뇨 전문의가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전문의가 본다고 할지라도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당뇨병은 단순한 감기환자와는 달리 식사조절, 약물, 운동요법에 관한 교육이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약값을 올린다고 해서 환자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니던 병원을 하루아침에 옮기기도 쉽지 않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 몫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라도 가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윤규명 씨는 "약값이 오르더라도 그동안 다니던 병원을 바꾸기 쉽지 않다." 며 "의사와 얼굴을 익히려면 많은 시간이 든다."고 말했다.

그간 만성질환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교육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했었다.
그 역할을 보건소가 보충하다보니 극심한 경영란을 겪은 일차 의료기관과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 남영주시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을중심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병 진료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잘만 시행하면 좋은 점도 있다.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병원을가까이 두고 치료를 받는다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와 환자와의 거리도 좁혀 만족도도 높아진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니 이득이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정부에서도 주먹구구식의 해결법보다는 현실성 있는 해결법을 찾아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